

국어과 교과서의 여성가사 수록 현황과 대안의 모색 —여성주의 관점에서

박유진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과정

- I. 서론
- II. 국어과 교과서의 고전시가 수록 양상
- III. 국어과 교과서의 여성가사 수록 양상 분석
- IV. 국어과 교과서의 여성가사 수록 방안 모색
- V. 결론

I. 서론

이 글은 고등학교 국어과 교과서¹에 수록된 고전시가들 중에서, 여성들에게 있어 유일하게 공인받은 글쓰기²였던 가사에 주목하여 수록 양상을 살펴본 후, 여성주의 관점에서 여성가사³ 수록의 대안을 모색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개 여성문학의 범위는 여성작가의 문학, 여성주의 지향의 주제를 가진 문학, 여성과 관련된 문학 전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⁴ 이 중 여성관련 문학 전반을 여성 문학의 개념으로 삼을 경우 작품의 생산·향유·유통을 포괄하는 여성어문생활사를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여성어문생활사는 말과 글의 영역에서 여성이 참여하고 성취한 인사들을 포괄하는 한편 미시적 자료를 거시적으로 배치·해석하기⁵를

1 현 교육과정(2009)에 의거한 국어과 교과서에는 초,중,고등학교 1학년까지 쓰이는 『국어』와 고등학교 2학년 선택과목으로 『문학』,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고전』이 있는데 본고에서 특정 과목을 지칭하지 않을 때는 ‘국어과 교과서’라고 부르도록 한다.

2 김수경, 「<부여노정기>최초의 기행 소재 규방가사」,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 : 유명씨 작품을 중심으로』, 역락, 2002, p. 100.

3 이 글에서 ‘여성가사’는 여성을 중심으로 창작, 향유, 전승되어온 가사를 일컫는다. 교과서에서는 ‘규방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본고의 목적에 ‘규방’이라는 공간의 속성보다 ‘여성’이라는 젠더적 속성이 더 부합하다고 생각되어 ‘여성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즉, 여성주의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여성’에 방점을 둬 이 적절하다 본다.

4 김동준, 「여성문학의 전개와 여성의 목소리」, 『새 민족문학사 강좌』, 창비, 2009, p. 405.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본고는 조선후기 여성문학을 대표하는 시가인 가사의 창작, 향유, 유통에 주목하여 국어과 교과서에 여성가사를 해석하고 배치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다지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기 위해 국어과 교과서의 고전시가 수록 양상을 통시적·공시적으로 파악하되 여성주의의 관점으로 살펴보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필자의 이러한 시도는 세 가지 이유에서 시작되었다. 첫째, 국어과 교과서의 장르 선택, 작품 선택 시 선택과 배제의 원리가 작동하는데 이때 남성 중심의 편향된 모습을 보인다는 점, 둘째, 여성가사가 국어과 교과서에서 별로 주목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 셋째, 국어과 교과서에 여성가사의 창작과 향유, 유통의 실상이 제대로 구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한편, 본고에서의 관점인 여성주의 문학연구란 여성을 소재적 차원에서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작품을 비롯한 문학의 제 현상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삼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 국어과 교과서의 고전시가 작품, 특히 여성 가사의 수록 양상을 살필 때, 교과서와 작품 텍스트를 둘러싼 문학 환경 전반을 대상으로 성차의 시스템과 지식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밝히는 작업⁶을 수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교과서의 고전시가는 일종의 정전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정전’이라는 용어가 학교 교과과정 속에서 공인된 텍스트를 뜻⁷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본고에서는 교과서에 수록된 고전시가를 정전이라 전제하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정전을 형성해 온 개개의 텍스트들은 어떤 일정한 윤리적 또는 미적 가치를 함유함과 동시에 젠더화된 작자성(作者性)과 같은 외형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들이 다양한 가치관과 결부되어 정전이나 전통의 구축 및 재구축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 왔다.⁸ 피에르

5 김동준, 위의 책, p. 407.

6 이경하, 「여성주의 문학연구의 효용성과 고전문학사」, 『여성문학연구』 16, 한국여성문학학회, 2006, p. 17.

7 하루오 시라네 외; 왕숙영 역, 『창조된 고전』, 소명출판, 2002, p. 18.

8 하루오 시라네 외; 왕숙영 역, 앞의 책, 2002, p. 19.

부르디외(Pierre Bourdieu)에 따르면 생산에는 작품 생산과 작품의 가치 생산의 두 가지 기제가 작동한다. 따라서 국어 교과서에서 작품을 선택하여 배치시킴과 동시에 그 작품에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 예컨대 작품과 관련한 해설을 덧붙인다든지 그 가치를 알기 위한 학습활동을 구성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그러한 작업일 것이다. 때문에 정전은 항상 ‘재’생산되는 것이며 정전의 지위를 획득한 텍스트도 ‘재’평가를 받아 변형되거나 배제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현재 국어 교과서에 있는 고전시가 작품들도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교과서가 바뀔 때마다 이러한 ‘재’평가를 통해 정전의 지위가 갱신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⁹ 그러나 교육과정이 지금까지 10차례 개정되어 왔음에도 특정 작품이 계속 반복적으로 수록되고 있고 그것이 사대부 남성 작가의 작품에 한정되어 있음은 주목을 요하는 점이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국어과 교과서에 수록된 고전시가 작품이 통시적·공시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거시적으로 살피고, 그 안에서 여성가사에 주목하여 여성주의 관점에서 수록 상황을 검토하고 여성어문생활사가 잘 구현될 수 있게 수록할 방안을 제언해 보는 것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II. 국어과 교과서의 고전시가 수록 양상

공교육 내 국어교육을 통해 접한 고전문학작품이 학습자들의 전 생애를 통해 가장 대표적인 고전문학작품으로 남게 된다는 점에서 공교육 내에서 취사선택된 고전문학 작품의 영향력은 막강하다.¹⁰ 특히 한 시대와 갈래를 대표하는 작품으로서 선택되는 고전문학작품의 경우에

9 예컨대 3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에서 <감균은>, <신도가> 등의 악장 작품이 제시되나 5차 이후에는 배제되며 악장이라는 갈래 역시 수록되는 양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민요 갈래의 경우도 4차 교육과정까지 교과서에 거의 수록되지 않다가 7차 교육과정 이후에 적극 도입되어 현재까지 그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다.

10 조희정, 「고전 정전의 재검토」, 『문학교육학』 25, 한국문학교육학회, 2008, p. 299.

는 시대적인 상황과 당대인들의 삶까지도 작품 하나로 보여지곤 한다. 2009 교육과정(2012년 고시)에 따른 문학교과서는 이전까진 상, 하 혹은 I, II로 이루어졌던 두 권의 문학교과서가 한 권으로 대폭 축소되면서 수록되는 문학작품의 양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작품의 대표성이 더욱 절대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 한 권의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은 기존의 작품들에서 50%의 확률로 다시 선택과 배제의 평가를 통과한 작품들이기에 이들을 두고 2016년의 한국의 문학 정전 목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조희정(2008)에서 건국기부터 7차교육과정까지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고전 정전을 분석하였는데 이 논문을 통해 작가를 알 수 없는 고려 속요와 집단 창작물인 <용비어천가>를 제외할 때, 국어 교과서에 5회 이상 수록된 개인 작가에는 정철, 윤선도, 이정보, 이황, 정극인, 박인로, 송순, 정몽주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사대부 문인이라는 공통점을 지니는데 이처럼 교과서에 선택된 고전시가를 통해, 사대부 출신 문인들이 창작한 국문 시가가 교과서에서 선호되어 수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¹ 그동안 여성의 글쓰기는 오랫동안 상층남성에 의해 주도된 문학사에서 주변부에 속했던 만큼 기존의 문학 개념과 문학적 가치 기준에 잘 부합하지 않았기¹² 때문에 그 기준에서 여성의 글은 교과서 수록 작품 선택 시 배제되었으리라 보인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교수·학습되고 있는 국어과 교과서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음을 다음 <표 1>~<표 3>를 통해 볼 수 있다. 먼저 <표 1>은 2007 교육과정 국어(상) 14종과 국어(하) 16종,¹³ 2009 교육과정 국어 I, II 교과서 11종¹⁴의 고전시가 수록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작가가 남아 있는 시조와 가사 작품을 보더라도 가사에서는 정철의 작품이 압도적으로 실렸고 시조의 경우도 윤선도, 송순, 서경덕 등 사대부 남성의 작품이 주로 수록되어 있고 여성으로는 황진이의 시조가 수록되

11 조희정, 앞의 글, 2008, p. 315.

12 이경하, 앞의 글, 2006, p. 24.

13 2007 고시, 2010년 검정 교과서.

14 2012 고시, 2013년 검정 교과서.

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⁵⁾

표 1. 2007, 2009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본문의 고전시가 수록 양상¹⁶⁾

2007 국어(상), (하) 교과서			2009 국어 I, II 교과서			
갈래	작품	횟수	갈래	작품	횟수	
향가	제망매가(월명사)	5	향가	제망매가(월명사)	2	
	찬기파랑가(총답사)	1	고려 가요	가시리	3	
고려 가요	가시리	2		서경별곡	1	
				정과정	1	
				청산별곡	1	
	청산별곡	5	가사	관동별곡(정철)	5	
가사	관동별곡(정철)	사미인곡(정철)		1		
		속미인곡(정철)		1		
	가사	관동별곡(정철)	8	시조	만흥(윤선도)	1
사미인곡(정철)		1	서경덕의 시조		1	
속미인곡(정철)		2				송순의 시조
시조	도산십이곡(이황)	1	신희의 시조		1	
	만흥(윤선도)	2				원천석의 시조
	신희의 시조	1	이정보의 시조		1	
	어부사시사(윤선도)	1				황진이의 시조
	오우가(윤선도)	1	작자미상의 시조		3	
	월산대군의 시조	1				
	이현보의 시조	1				
	조찬한의 시조	1				
	황진이 시조	4				
	효종의 시조	1				
작자미상 시조	4					
민요	아리랑	1				
한시	송인(정지상)	1				

15 여성어문생활사는 여성이 창작, 향유, 유통했던 양상을 두루두루 살피는 작업을 해야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이후 여성가사로 논의를 좁혀 그때 살피기로 한다.

16 표를 정리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교과서의 본문에 수록된 작품만을 정리했다.

다음 <표 2>는 2009 교육과정(2009년 고시) 문학 교과서(2011년 검정)¹⁷와 2009 교육과정(2012년 고시) 문학 교과서(2013년 검정)¹⁸의 본문에 수록된 작품목록과 수록 횟수를 정리한 것이다. ‘문학’은 공통 교육과정 ‘국어’에서의 ‘문학’ 영역과 일반 선택 과목인 ‘국어 I’, ‘국어 II’의 ‘문학’ 영역을 전문적으로 심화·발전시킨 과목¹⁹이므로 좀 더 다양하고 수적으로도 많은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그간 상대적으로 여성시가가 소외되었던 현실을 감안한다면 더 많은, 다양한 여성시가의 교과서 진출은 분명히 환영할 만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철, 윤선도와 같은 사대부 문인들의 작품이 정전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미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바 있는 작가, 작품들을 또 다시 반복 수록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다양한 작품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는 점에 있어 문제적이다. 사대부 문인들의 작품 속에서 선택되어 수록된 허난설헌의 <규원가>, 작자미상의 <덴동어미화전가>와 같은 여성가사, 이옥봉의 한시 <자술>, 황진이의 시조가 눈에 띈다.

특히, 2012 문학 교과서는 기존에 두 권이던 것이 한 권으로 통합되면서 작품의 종류와 수가 이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가사에 주목해 봤을 때는 정철의 <속미인곡>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고 시조의 경우에도 이항의 <도산십이곡>과 윤선도의 <만흥>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수록 교과서가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작자미상 혹은 작자가 불분명한 경우 표시하지 않았다.

③ 시조의 경우 작품명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작품명()’로 표기하였고 작품명이 따로 없을 경우 작가명으로 작품을 정리했다. 본고는 작품의 수록 상황을 남녀 성별로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선택했다.

④ 순서는 가나다순이다.

17 2009년에 고시된 2009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에 의거한 것으로, 문학 I 13종, 문학 II는 14종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약칭으로 2009 문학 교과서라고 칭하도록 하겠다.

18 2012년에 고시된 2009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에 의거한 것으로, 1권이며, 총 11종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약칭으로 2012 문학 교과서라고 칭하도록 하겠다.

19 교육과학기술부, 『2009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 p. 134.

표 2. 2009 교육과정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본문의 고전시가 수록 양상

2009 문학 I, II			2012 문학		
갈래	작품(작가)	수록 횟수	갈래	작품(작가)	수록 횟수
고대 가요	공무도하가	4	고대 가요	공무도하가	4
	구지가	5		구지가	2
				황조가(유리왕)	1
백제 노래	정읍사	2	백제 노래	정읍사	1
향가	서동요(서동)	1	향가	원왕생가(광덕)	1
	원왕생가(광덕)	2		제망매가(월명사)	5
	제망매가(월명사)	5		찬기파랑가(총담사)	5
	찬기파랑가(총담사)	7			
	처용가(처용)	1			
고려 가요	가시리	2	고려 가요	동동	2
	동동	6		만전춘별사	1
	만전춘별사	1		서경별곡	4
	서경별곡	7		정석가	1
	정석가	1		청산별곡	2
	청산별곡	2			
경기 체가	한림별곡 (한림 제유)	5	경기 체가	한림별곡 (한림 제유)	1
악장	용비어천가(정인지 외)	3	악장	용비어천가(정인지 외)	1
가사	규원가(허난설헌)	2	가사	규원가(허난설헌)	1
	누항사(박인로)	3		누항사(박인로)	1
	덴동어미화전가 (작자미상)	2		덴동어미화전가 (작자미상)	1
	면앙정가(송순)	1			
	사미인곡(정철)	5		상춘곡(정극인)	3
	상춘곡(정극인)	4			
	속미인곡(정철)	6		속미인곡(정철)	8
	용부가(작자미상)	1			
	일동장유가(김인겸)	1			

시조	강호사시가(맹사성)	1	시조	강호사시가(맹사성)	1
	견회요(윤선도)	1			
	김상용의 시조	2		김천택의 시조	1
	김수장의 시조	2			
	김종서의 시조	1		도산십이곡(이황)	4
	김천택의 시조	1			
	도산십이곡(이황)	2		만흥(윤선도)	4
	매화사(안민영)	1			
	박인로의 시조	1		성삼문의 시조	3
	박효관의 시조	1			
	성삼문의 시조	2		송순의 시조	2
	송순의 시조	3			
	성훈의 시조	2		어부사시사(윤선도)	1
	어부사시사(윤선도)	5			
	우탁의 시조	1		이정보의 시조	1
	원천석의 시조	1			
	윤선도의 시조	1		조식의 시조	1
	이개의 시조	1			
	이명한의 시조	1		한호의 시조	1
	이정보의 시조	1			
	이조년의 시조	3		황진이의 시조	5
	이황의 시조	2			
	홍량의 시조	4		작자미상 시조	9
	황진이의 시조	5			
	작자미상 시조	21			
민요	논매기 노래	2	민요	논매기 노래	1
	명주 모심기 노래	1			
	베틀 노래	1		시집살이 노래	1
	시집살이 노래	2			
	아리랑타령	1		정선 아리랑	1
	정선 아리랑	1			
	캥마쿵쿵 노세(작자미상)	1			

잡가	유산가	1			
한시	곡자(허난설헌)	1	한시	고시7(정약용)	1
	독두시(이색)	1			
	보리타작(정약용)	2			
	부벽루(이색)	1		보리타작(정약용)	1
	송인(정지상)	3			
	여수장우중문시(을지문덕)	1		자술(이옥봉)	1
	절명시(황현)	3			
	제가야산독서당(최치원)	3		절명시(황현)	1
	추야우중(최치원)	2			

좀 더 논의의 초점을 좁혀, 고전시가 중 여성가사에 한해 살펴 보도록 하자. <표 3>은 2007, 2009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국어, 문학 교과서 본문 중 여성가사 수록 작품과 교과서를 정리한 것이다. 우선 2007, 2009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서 중 본문에 수록된 여성가사는 단 하나도 없다. 모든 교과서에 정철의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중 하나만이 수록되어 있다. 어느 시대의 어느 갈래의 대표 작품을 선택해 교과서에 배치한다고 할 때, 가사의 대표 작품을 정철의 이 세 작품으로 보는 것이 너무 상식이 되어 버린 상황에서 선택과 배제의 과정에서 여성가사의 작품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성 작가층과 독자층의 확대를 조선 후기 문학사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가치를 부여하고 여성가사의 글쓰기 전략을 인정²⁰한다면 가사의 대표 작품으로 여성 가사가 과감히 선택될 수 있다. 문학작품을 배우는 것이 단순히 작품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당대 작가와 향유층에 대한 문화도 같이 습득하는 것인데 한국 문학사에서 여성의 창작과 향유가 두드러진 가사 영역에서 여성가사를 배제하는 것은 그나마 여성들

20 이러한 시도로 박무영(1999)은 여성 한시에 나타나는 여성 작가만의 전략을 파악하여 그동안 주변성과 열등성으로 규정되던 여성의 한시에 대해 미학적 성취를 발견하였다.

이 참여했던 영역까지도 내어 주는 셈인 것이다.

이처럼 남성 지식인의 장르체계와 서열을 그대로 둔 채 그 틀 안에서 특정 장르와 작품을 선별하여 다루는 한 결국 여성가사는 비주류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가사를 통틀어 봐도 작품으로는 3편, 수록 횟수로는 7회에 불과하다. 교과서에 수록되는 양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남성작가의 작품 수와 수록 빈도에 비한다면 수록의 빈도가 현저히 적음을 알 수 있다.

표 3. 2009 교육과정 문학 교과서 본문의 여성가사 수록 현황²¹

연번	작품(작가)	교육과정(고시)	출판사/교과서/(저자) ²²
1	용부가(작자미상)	2009(2009)	미래엔 문학 I (윤여탁 외)
2	규원가(허난설헌)	2009(2009)	천재교과서 문학 I (정재찬 외)
			창비 문학 I (박종호 외)
		2009(2012)	천재교과서 문학(정재찬 외)
3	덴동어미화전가 (작자미상)	2009(2009)	천재교육 문학 I (김윤식 외)
			미래엔 문학 II (윤여탁 외)
		2009(2012)	천재교육 문학(김윤식 외)

Ⅲ. 국어과 교과서의 여성가사 수록 양상 분석

앞에서 대략적으로 건국기부터 2009 교육과정까지의 국어과 교과서의 고전시가 수록 양상을 살펴 보았다. 이 장에서는 여성가사를 중심으로 학습활동 내용, 발췌 부분, 관련 문학사 서술 부분, 수록된 단원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21 이 기간(2007, 2009 교육과정)에 국어 교과서에는 여성가사가 본문으로 수록된 경우가 없어 문학 교과서의 수록양상을 정리하였다.

22 이후에는 '출판사(대표 저자의 성)'으로 줄여서 표기하도록 한다.

표 4. 2009 교육과정 문학 교과서의 여성가사 수록 내용

연 번	출판 사/ 검정 년도	단원	학습 목표	학습활동	수 록 부 분
1	미래 엔(윤) /2011	1. 문학의 개념과 역 할 1. 문학의 개념 (2) 소통활 동으로서의 문학 -용부가(작 자미상)	- 문 학 이 인 간 사 이 의 소 통 활 동 의 하나 라 는 점 을 이해 한다.	1. '저 부인'과 다음 작품의 '뽕 덕 어미'에 대한 묘사에서 공통 점을 찾아보자. 2. 이 작품의 주제와 관련하여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이 작품에서 작가의 가치관 이 직접 나타나는 부분을 찾아 보자. (2) 독자와의 소통을 위해 작가 가 택한 말하기 전략은 무엇인 지 말해 보자. 3. '저 부인'의 행실을 대상으 로 역할을 정하여 '저 부인'과 작가 사이의 가상 토론을 해 보자.	전문 수 록
2	천재 교과 (정) /2011	1. 문학의 개념과 역 할 2. 문학의 역할 (2)삶의 성 찰과 다양 한 가치 추 구 01. 규원가 (허난설헌)	- 문 학 이 인 간 과 세 계 의 이 해 를 돕 고 삶 의 의미 를 깨닫 게 하며 정 서 적· 미 적 으 로 삶을 고 양 함 을 이 해 한 다. - 문 학 이 상 상 력 과 감 수 성 을 신 장 하 는 기 능 을 가 지 고 있 음 을	1. 작품에서 시적 화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성 찰하고 있다. 다음 각각의 태도 에 해당하는 구절을 찾아 보자. (자조/탄식/원망) 2. 화자가 고조된 정서를 순수 리말을 사용하여 표현한 부분 을 찾아보고 그와 같이 표현한 까닭을 추리해 보자. 3. 다음 글을 읽고 아래 활동 을 해 보자. (김태준, '허난설헌의 꿈과 세 가지 한'에서) (1)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조선 시대의 여성상과 허난설헌의 삶의 태도를 비교해 보자. (2) 이 작품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를 오늘날의 관점에서 평 가해 보자. 4. 다음 시를 읽고 아래 활동 을 해 보자.(문정희, '작은 부	전문 수 록

			이 해 한 다. - 문학이 다 양 한 가치 추 구를 통 해 공동 체의 역 동성을 증진함 이 해 한 다.	업 노래') (1) 이 시의 공간적 배경인 '부 억'의 현실적 의미와 상징적 의 미를 각각 이야기해 보자. (2) 이 시는 현대의 여성 화자 가 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시의 화자가 '규원가'의 화 자에게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들려줄지 추측해 보자.	
3	창비 (박) /2011	II. 문학활 동 5. 교술의 수용과 생 산 (2) 발견 과 성찰 01. 규원가 (허난설헌)	-교술 갈 래의 내 용 이해 하기 -교술 갈 래의 가 치 이해 하기	1. 이 작품에 나타난 화자의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과거와 현재로 나누어 다음 표에 정리 해 보자. 2. 화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처지를 표현한 부분은 어디이 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3. 다음을 참고하여 이 작품에 나타난 당대 여성들의 삶을 추 측해 보자. (이덕일, '허난설헌의 세 가지 한' 중에서)	전문수 록
4	천재 교과 서(정) /2013	I. 문학의 소통과 향 유 2. 문학작 품의 수용 과 생산 (1) 작품의 비판적·창 의적 수용 -규원가(허 난설헌)		1. 시적 화자의 상황과 태도를 중심으로 아래 활동을 해 보자. (1) 시적 화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말해 보자. (2) 다음 시구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태도를 파악해 보자. 2. 다음 시구의 함축적 의미와 표현상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 3. 다음은 규방 가사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1) 이 작품이 일반적인 규방 가사의 내용과 어떤 점에서 다 른지 말해 보자. (2) 이 작품에 드러나는 시적 화자의 태도를 당대 양반 부녀 자들의 처지에서 비판해 보자. 4. 다음 시를 읽고 아래 활동	전문수 록

				을 해 보자. (문정희, 작은 부엌 노래) (1)이 시에서 시적 화자의 인식이 변모하는 과정을 설명해 보자. (2) 이 시의 시적 화자가 ‘규원가’의 시적 화자에게 말을 건넨다면 어떤 말을 들려줄지 추측해 보자. (3) 자신의 가치관에 비추어 이 시의 시적 화자의 태도를 평가해 보고, 그 결과를 친구들과 비교해 보자.	
5	천재 교육 (김) /2011	I. 문학의 성격 1. 문학의 개념 (2) 문학과 문화 02. 덴동어미 화전기 (작자미상)	문학과 언어, 문학과 화의 관계를 중심으로 문학을 이해한다.	1. 꽃 피는 봄날을 즐기는 우리의 풍속을 말해보자. 2. (가)~(마)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자. 2. 이 노래가 매년 열리는 화전놀이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부분을 찾아보자. 3. (다)는 일반적인 화전가의 내용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그 다른 점을 설명해 보자. 4. (라)에서 알 수 있는 덴동어미의 인생관을 말해 보자. (연결짓기) 다음은 ‘강강술래’의 한 부분과 ‘강강술래’의 기원에 대한 글의 한 부분이다. 이를 읽고 ‘강강술래’와 ‘덴동어미 화전기’가 공동체의 삶의 방식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었는지 말해보자. (표현하기)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갔던 경험을 화전가의 형식을 빌려 모둠별로 표현해 보자.	부분수록 23
6	미래엔(윤) /2011	II. 한국문학의 범위와 역사 4. 문학 담 당층의 확대와 다양성 추구	-이 시기 문학의 전개 양상과 특징을 이해한다. -조선 후	1. 이 작품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덴동어미가 청춘과부에게 들려준 사연은 어떠한 것이었는지 정리해 보자. (2) 덴동어미가 자신의 고난에 찬 삶을 회상하여 들려준 후,	부분수록 24

		(5)덴동어미 화전기 (작자미상)	기 문학의 시대적 의의와 역할에 대해 이해한다. -조선 후기 문학의 갈래들을 알고 대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 시기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의 전통을 이해한다.	청춘과부가 개가하려고 하면 양식을 싸서 따라다니며 말리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조선후기 가사의 특징, 규방가사의 개념과 종류) 2. 다음 ‘자치가라’의 까투리 역시 ‘덴동 어미 화전기’의 덴동 어미와 같은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작품들에서 보이는 남편들의 계속되는 죽음과 여성의 개가는 어떠한 사회적 의미를 지니는지 말해 보자. 3. 다음은 ‘만분가’ 중 끝 부분이다. 시적 상황과 화자의 내적 갈등의 측면에서 두 작품을 비교해 보자.	
7	천재교육 (김) /2013	II. 한국문학의 범위와 역사 3. 한국 문학과 시대 상황 (1) 한국고전 문학과 시대 상황 2. 덴동어미 화전기 (작자미상)	-한국 문학 작품에 나타난 당대의 의식, 인물, 배경, 표현 등을 작품 속 시대 상황과 연관지어 이해한다.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배경을	1. 꽃 피는 봄날을 즐기는 요즘의 문화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하나 말해 보자. 2. 이 노래는 매년 열리는 화전놀이와 관련되어 있다. 다음 항목들을 중심으로, 화전놀이의 특징을 보여 주는 부분들을 작품 속에서 구체적으로 찾아보자. (화전놀이의 계절적 배경/화전놀이의 절차/화전놀이의 마무리와 귀가) 3. 다음 그림을 참조하여, (다)의 ‘영감은 사기 한 짐지고 골목에서 크게 외고~모가지가 자라목 되고 발가락이 무지러졌네’에 어떤 시대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지 설명해 보자.	부 분 수 록 25

		오늘날의 시대 배 경과 비 교 하 여 이 해 한 다.	4. (라)에서 알 수 있는 덴동 어미의 인생관은 무엇인지 말 해 보자. 5. 다음 시조(나모도 바히 돌 도~) 속 도사공의 심정과 (다) 의 덴동 어미의 심정을 비교해 보자. 6. 학교에서 소풍을 갔던 경험 을 화전가의 형식을 빌려 모듬 별로 표현해 보자.
--	--	--	---

1. 학습활동 내용의 적합성

국어과 교과서의 학습활동에서 여성가사에 대한 초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문학 일반 이론의 예시 작품으로서의 의미(<표 4>에서의 연번: 1번)와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삶과 관련한 의미(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다. 문학 일반에 관해 작가의 개성이나 가치관, 소통 전략을 여성가사작품에서 찾는 전자의 학습활동은 논의에서 제하고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삶과 관련한 의미로써 다른 5개의 학습활동의 적절성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2번, 3번, 4번은 <규원가>와 관련한 학습활동인데, 이 활동들은 조선시대 여성의 삶을 추측해 보고, 당대 양반 부녀자들의 처지에서 그리고 오늘날의 관점에서 평가해 보도록 되어 있다. 허난설헌의 모습이 봉건적인 인습과 규범의 제약을 받으며 남편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는 당대 일반적인 모습과 달리 원망하고 탄식하는 등 직접적으로

23 화전놀이 권유, (중략) 화전놀이 준비, 화전놀이, (중략) 덴동어미가 세 번째 남편과 개가하여 겪은 일을 이야기함, (중략) 청춘과부에 대한 덴동 어미의 충고, (중략) 화전놀이를 끝냄.

24 (전략) 빗재 남편을 잃고 덴동이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덴동 어미가 한 노인에게 지난 사연을 이야기한 후 다시 화전놀이를 하는 현재의 시점으로 돌아와 청춘과부에 개 개하지 말라는 당부하는 장면(후략).

25 화전놀이 권유, (중략) 화전놀이 준비, 화전놀이, (중략) 덴동어미가 세 번째 남편과 개가하여 겪은 일을 이야기함, (중략) 청춘과부에 대한 덴동 어미의 충고, (중략) 화전놀이를 끝냄.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주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작중 화자이면서 글쓴이였던 여성의 삶을 가사의 내용을 통해 상상해 보는 것은 일반적인 활동이다.

다만, ‘오늘날의 관점에서 평가해 보자’나 ‘양반 부녀자들의 처지에서 비판해 보자’는 발문은 수정이 요구된다. 평가하는 주체나 시점이 오늘날이나 당대의 양반 부녀자들이라는 것이 과연 의미있는 설정인 것인가에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늘날의 관점에서 평가해 보자는 문제에 대한 교사용지도서의 예시 답안에는 ‘이 작품의 화자는 이별의 상황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자조하는 한편, ‘임’을 경박하고 방탕하며 신의없는 대상으로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다. 사회적 지위나 자존감이 높아진 오늘날 여성들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전자의 모습은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시 여성들의 삶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가부장제의 지배적 가부장제의 지배적 관념에서 벗어나 남성 위주의 가치관에 반발하는 후자의 모습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와 함께 현대시인 문정희의 <작은 부엌 노래>와 연계된 활동에서 이 문제에 대한 예시 답안의 경우에는 ‘당신은 더 큰 틀에서 문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의 없는 임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불평등한 가부장 문화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닌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불평등한 가부장 문화를 극복하고堂堂하게 살아갑시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규원가>의 화자가 마지막 부분에 ‘신의 없는 임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만, 그것이 불평등한 가부장 문화 자체를 극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비판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시대의 한계 속에서 여성인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처신을 보여주었는가²⁶에 주목하고 가사를 통해 자신의 진솔한 내면을 토로함으로써 스스로 위안을 받았던 점을 높이 평가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또한 임의 사랑에 매달리고 임과의 원만치 못한 관계에서 자신을 탓하

26 김동준, 앞의 책, 2009, p. 407.

며,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며 참고 사랑을 갈구하기만 하는 기존의 상사류 고전 시가와 달리 임의 존재를 절대화하지 않고 여성 화자인 자신도 존재 가치가 있다는 화자의 사유에 주목하여 여성의식의 의의를 드러내야 함이 오히려 마땅할 것이다. 예시 답안처럼 현대인의 관점에서 조선시대 여성 문학을 평가한다면 모든 조선시대 여성 문학의 경우 열패감만 안겨 주는 작품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될 것이다.

5번, 6번, 7번의 <텐동어미화전가> 학습활동은 크게 문화적인 측면에서 ‘화전놀이’라는 풍습을 주목한 것과 여성의 개가, 경제적 몰락과 같은 조선후기 시대상황에 주목한 것, 텐동어미라는 조선후기 여성의 삶에 주목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문화적·시대적인 측면과 함께 텐동어미가 스스로의 운명에 대해 보여주는 태도에 주목한 것은 여성의 처지에 대한 깊이있는 성찰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 여성의 개가가 단순히 팔자를 고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생산수단이 결여된 여성으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시대적인 상황과 함께 이해를 돕고 있는 것이나 여성들의 한스러움이 혼자만의 고민으로 끝나지 않고 화전놀이를 통해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여성들끼리 서로 조언을 해 주며 풀어냈음을 확인하여 주는 점이 그러하다. 또한 남성에 의지해서 사는 삶은 한계가 있다는 것, 진정으로 주체적인 인생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역설하는 텐동어미의 인생관을 정리하는 학습활동만으로도 이전까지의 교과서에서 보아 온 나약하고 수동적이기만 했던 조선시대 정형화된 여성상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에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텐동어미의 개가와 관련한 기구한 삶의 이야기가 놀이를 통한 달관으로 이어지고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청춘 과부에 대한 동류의식과 연대의식으로서 진심어린 조언을 하는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아 아쉽다. 현재 교과서의 활동에서는 단순히 화전놀이를 조선시대 여인들의 풍습 내지는 놀이로만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어 놀이를 통한 달관이나 여성들의 연대의식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텐동어미와 청춘과부라는 두 인물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데, 이 외에도 이 작품에는 주막집 아낙네, 이웃집 여인, 고향의 여자 노인이 등장하며 ‘글에 용해서 내척편을 외우는 어떤 부인, 칠월 편을 노래하는 어떤 부인, 목성 좋아 화전가를 잘도 부르는 어떤 부인’과 같은 여러 여인들이 등장한다. 이러한 다양한 여인들의 개개의 삶을 통해 당대 여성들의 인고의 자세와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들 간에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는 깊은 연대를 섬세하게 살펴 볼 수 있도록 학습 활동을 구성해 봄을 제안해 본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의 대화 형식의 표현방법이나 설득의 방법과 같은 여성의 말하기 전략도 관심을 갖고 가치를 부여해야 할 부분들이다.

2. 수록 부분의 적절성

가사는 다른 고전시가에 비해 길이가 길기 때문에 교과서에 수록할 때에 부분 발췌하여 수록하기도 한다.²⁷ <규원가>는 비교적 다른 가사들에 비해 길이가 짧아 전문을 수록하고 있으나 조선후기 서사화 경향이 강해진 <덴동어미화전가>의 경우는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수록할 수밖에 없다. 부분 발췌가 불가피하다면 어떤 부분을 선택할지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단원의 학습목표에 따라 달라질 터이지만 그보다 먼저 해당 작품에서 문학사적으로 중요하고 의미있는 부분을 택함이 마땅하다.

2009 천재교육 문학Ⅱ와 2012 천재교육 문학은 수록 부분이 같고, 2009 미래엔 문학Ⅱ는 수록 부분이 다르다. 전자는 ‘화전놀이 권유, (중략) 화전놀이 준비, 화전놀이, (중략) 덴동어미가 세 번째 남편과 개가하여 겪은 일을 이야기함, (중략) 청춘과부에 대한 덴동 어미의

27 2. 제제 선정 기준 ⑦ 작품 수록 방법 : 작품 수록 시 원문 또는 원문에 충실한 번역물을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서 분량이나 교수·학습 활동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략 등의 방식으로 발췌하거나 현대어로 수정 또는 요약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지적 수준을 넘어서는 단어나 구절에 대해서는 주석을 달 수 있다. - 교육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집필 기준 (국어, 도덕, 경제, 역사)』, 2015, p. 38.

충고, (중략)화전놀이를 끝냄’, 후자는 ‘(전략) 넷째 남편을 잃고 텐둥이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텐둥 어미가 한 노인에게 지난 사연을 이야기한 후 다시 화전놀이를 하는 현재의 시점으로 돌아와 청춘과부에게 개하지 말라는 당부하는 장면(후략)’을 다루고 있다. 전자는 화전놀이의 전개 과정(등고(登高)→유산(遊山) 또는 화전놀이→귀가(歸家)을 보여 주려고 부분 부분 중략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를 수록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후자는 텐둥어미의 기구한 사연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앞, 뒤를 다 생략하고 특정 부분만을 수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가사 중 화전가류에서 ‘화전놀이’는 창작과 향유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요컨대 화전놀이를 통해서 여성들은 자신의 갈등과 한을 해소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었으며 화전놀이 자체가 여성들의 일상을 벗어난 여유와 풍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즉 화전놀이는 화전가의 창작과 향유의 계기이자 중핵인 것이다. 단순히 자신의 한스러움을 토로하기만 하는 자탄가류와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때문에 화전놀이의 전개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 화전가류의 가사를 수록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와 더불어 향유 방식을 고려해서 수록 부분을 선택해야 한다. 예컨대 여성놀이를 창작의 기반으로 한 여성가사의 경우 여성 상호간의 연대를 통한 돈독한 공동체意識의 형성에 있어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여성가사는 개인의 감성이나 흥취를 읊은 사대부가사와는 다르게 다수의 여성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서 향유되고 불려지기도 했는데²⁸ 이러한 창작적 특성과 향유 방식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화전놀이를 같이 간 여인들을 불려들이는 수법이 나타나는 부분, 위로와 한의 해소 부분이 선택되어야 한다. 2009 천재교육 문학Ⅱ와 2012 천재교육 문학의 경우 ‘여보시오 말씀 듣소...’ 부분에서 동참자들을 불려들이는 부분을 수록하고 있고 ‘그 집 택내’가 굶어 죽으려는 텐둥 어미

28 류해춘, 「규방가사에 나타난 놀이문화와 경제활동」, 『국학연구론총』 15, 태민국학연구원, 2015, p. 10.

를 설득하며 위로하는 부분(아니 먹고 굶어 죽으려 하니 그 집덥네가 강권하니 죽지 말고 밥을 먹게 죽은들 시원할까...), 텐동어미가 청춘과부에게 개가하지 말 것을 권유하자 ‘앉아 울던 청춘과부 황연대각 깨달아서 텐동 어미 말 들으니 말쑥마다 개개 옳에 이내 수심 풀어내어...’ 부분을 수록하여 위로와 한의 해소를 보여 주고 있다. 2009 미래엔 문학II의 경우에는 텐동어미가 자신의 기구한 삶을 노인에게 하소연하는 부분의 대화구조와 개가를 하지 말라고 청춘과부에게 권유하는 부분에서 공감과 위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적인 것으로 화전놀이를 통한 한의 해소까지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3. 문학사 서술과 규방가사 설명의 적절성

한국문학사의 전개가 특정 갈래의 출현·소멸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만큼 시가 정전의 형성 과정은 특정 갈래의 특성을 가장 잘 담고 있는 텍스트가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²⁹ 특히 교과서에서는 문학사를 서술하고 그에 해당하는 대표 작품을 수록하기 때문에 문학사와 작품과의 관계는 매우 밀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성가사의 출현 관련 조선후기 문학사 서술 대목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문학 교과서에서 <규원가>와 <텐동어미화전가>가 규방가사로 분류되고 명명되고 있어 교과서의 규방가사 해설 부분과 문학사 중 규방가사가 속해 있는 조선후기 부분을 살펴 본 결과 세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규방가사 작품이 본문에 수록되지 않은 출판사의 경우 규방가사의 일면만 다루고 있어 온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12 동아출판사 문학의 경우 규방가사의 성격을 ‘가정의 규범과 교훈 또는 시집살이의 애환을 다룬...’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2012 신사고 문학의 경우에는 ‘부녀자들의 애환을 담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규방가사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29 조희정, 앞의 글, 2008, p. 316.

규방가사를 계녀가류, 탄식가류, 화전가류 등으로 분류하는 바, 이 중 몇 가지를 추려 규방가사의 전부인 것처럼 정의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정의로 인해 학습자들은 조선 시대의 여성들이라고 하면 불행한 존재, 고립된 존재, 한탄하는 존재를 떠올리게 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³⁰ 그러나 규방가사의 경우 이러한 여성은 ‘탄식가류’ 가사에만 등장하는 경우에 한정될 뿐이다. 현실과 밀착된 여성의 삶과 의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규방가사 속에는 탄식과 자극, 슬픔과 기쁨, 수동적인 모습과 능동적인 모습³¹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바, 이러한 면면이 좀 더 잘 드러나게끔 상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규방가사의 향유층에 대한 상이한 설명이 문제가 된다. 2009 천재교과서 문학의 경우 18세기 이후 영남 지방의 부녀자들로 한정해서 다루고 있으며 2009 미래엔 문학의 경우 ‘여성들이 능동적으로 창작에 참여한 가사’라 하여 특정 계층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특히 최근에 규방가사를 여성만이 창작하고 향유한 장르로 보지 않는 연구결과들³²이 속속들이 나오면서 규방가사라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셋째, 문학사 서술에서 규방가사에 대한 언급이 주변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2012 비상교육 문학의 경우 조선 후기 남성들의 가사가 변모한 내용을 대표적인 작가와 작품을 예로 들면서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규방가사는 ‘여성들 사이에서, 여성들의 삶의 애환이 잘 반영’ 정도로 간략히 기술되어 있다. 2012 상문연구사 문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조선전기 남성의 전유물이던 가사 갈래에 여성들이 참여하여 여성들의 경험과 사유를 표현함으로써 가사문학의 영역을 확대하고 개편한 점은 그 의의가 크다. 그럼에도 교과서에서는 규방가사에서 여성작자

30 박혜숙, 「덴동어미화전가와 여성의 연대」, 『여성문학연구』 14, 한국여성문학회, 2005, p. 143.

31 백순철,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사회적 성격」,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32 박경주, 「남성화자 규방가사 연구」, 『한국시가연구』 12, 한국시가학회, 2002.

박경주, 「양성공유문학(兩性共有文學)으로서 규방가사의 특성 고찰」, 『고전문학과교육』 14,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층의 활약을 작가층의 확대 정도로 다루고 있어 여성 작가층을 남성 사대부의 주변화된 존재로 여기고 있음은 문제적이라 하겠다.

4. 남성가사와 여성가사의 수록 양상 비교분석

여성가사가 수록된 교과서에서 본문에 수록된 전체 고전시가 중 여성가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기 위해 교과서에서 고전시가 작품을 추려 보았다. 2009 문학 교과서의 경우 2권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문학 I, 문학 II 둘 다 살펴 전체적인 수록 상황을 파악하였다. 출판사 별로 고전시가 작품 수록의 양에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 2009 교과서의 경우 적게는 12편, 많게는 17편을 수록하고 있고 2012 문학 교과서는 교과서가 한 권으로 줄면서 미래엔의 경우 5편, 상문연구사의 경우 11편의 고전시가 작품을 수록하고 있었다. 고전시가 전체 작품에서 여성가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 문학 교과서의 경우 2.9%, 2012 문학 교과서의 경우 2.3%의 수록 비중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고전시가의 수록 비중도 줄었지만 이와 함께 여성가사의 수록 비중도 함께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수록 단원에 있어서도 남성가사와 비교했을 때 여성가사는 한국문학의 역사나 흐름 단원의 중심부에 있다기보다는 문학 이론, 예컨대 문학의 개념이나 수용과 생산 단원의 주변부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한국문학의 역사와 흐름이라는 단원, 즉 한국문학사의 대표작품은 사대부 남성 주도의 문학사로 단단하게 구축된 성과 같아 이 성을 허물지 않고서는 남성 작품을 대신해 여성 작품이 들어가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단적으로 여성가사와 남성가사가 같이 수록되었을 때 여성가사가 한국문학사에 수록되고, 반대로 남성가사가 문학 이론에 수록된 경우는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³³

33 일례로, 2009 천재교과서의 경우 <규원가>는 I. 문학의 개념과 역할, 2. 문학의 역할, (2)삶의 성찰과 다양한 가치 추구에 수록된 반면, <속미인곡>은 문학 II. II. 한국문학의 범위와 역사, 2. 한국문학의 역사 (3) 조선 시대의 문학에 수록되어 있다.

IV. 국어과 교과서의 여성가사 수록 방안 모색

앞서 여성가사를 중심으로 교과서의 수록 양상을 살펴 보았는데 결과적으로 수적으로도 남성 작품의 수에 적고, 질적으로도 여성의 가사 창작·향유·유통의 측면이나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전술했다시피 교과서의 남성중심 장르체계 안에서 작품 서열을 전복시키지 않는 한 남성작가의 작품을 여성작가의 작품으로 대체하기란 쉽지 않다. 예컨대 조선시대 가사 작품을 한국문학의 역사와 흐름 단원에 정철의 가사와 여성가사 중 대표적인 작품을 선정해 수록한다고 할 때 현재의 기준으로는 정철 작품이 선택되고 여성가사는 배제된다. 여성가사가 수록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국문학사에서 대표 작품으로는 정철의 가사가 수록되고 문학이론을 뒷받침하는 작품으로 주변적으로 수록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 관계가 뒤바뀌어 수록된 경우는 없다. 그렇다면 남성중심 장르체계와 서열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여성가사의 어떤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기존 교과서 수록 방식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무엇보다도 여성가사의 한국문학사적 의의를 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교과서에 고전 자료를 선택함에 있어 우선적 기준으로 작동하는 것은 한국문학사적 의의이다.³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집필 기준에서도 제재 선정 기준의 첫 번째가 문학사적 대표성과 학습자의 취향 고려이다. 때문에 이미 생산되어 존재하는 여성가사에 걸맞는 가치 생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때 학습자의 취향을 고려하여 여성가사의 어떤 부분을 가치있게 조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여성가사 대표 작품으로서의 다양한 작품 발굴에 힘을 쏟아야 하며 이를 국어 교육적으로 실현화하는 연구들이 뒷받침되어야

34 조희정, 앞의 글, 2008, p. 316.

할 것이다. 단적으로, 국문학에서 <복선화음가>의 연구는 이전부터 여성의 치산과 자의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주목해 왔지만 상대적으로 국어 교육에서는 연구가 미흡한 편이다. 또한 규방가사의 유형과 이 안의 다양한 여성적 삶의 모습들이나 목소리에 대한 연구들에도 국어교육적인 가치 부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규방가사는 한결같이 여성과 가부장제라는 문화적 보편성 안에서만 다루어진다.

한편, 교과서에 다루고 있는 여성가사 작품의 경우도 <규원가>, <덴동어미화전가>, <용부가> 정도인데 <규원가>는 규방가사의 최초 작품이라는 점에서 <덴동어미화전가>와 <용부가>는 조선후기 여성의 모습과 여성작가층의 확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자식을 떠나 보내는 부모의 심정을 그린 계녀가류³⁵나 최초의 여성 기행가사 <부여노정기>, 남녀 간에 화전놀이를 두고 가사로 논쟁을 펼친 양상을 보여주는 <조화전가>와 <반조화전가> 등의 작품도 충분히 교과서에서 다룰만한 작품이다. 다시말해, 여성가사를 계녀가류, 탄식류, 화전가류 등의 세 가지로 유형화시키지 않고 여행, 놀이, 노동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조선후기라는 복잡다단한 시대를 살았던 여성들의 삶과 의식을 보다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작품들의 특성을 규명하여 국어과 교육과정과 학습자의 요구, 사회적 요구에 적합한 작품들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규원가>나 <덴동어미화전가>의 경우 좀 더 여성이 주체가 되어 창작, 향유, 유통되었던 일련의 여성어문생활을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문학사를 꼼꼼하게 기술해야 할 것이다. 앞서 교과서 분석을 통해 살펴 봤듯이 규방가사의 문학사 서술 부분에서 창작·향유·유통의 양상이 제대로 기술되어 있지 않고 학습활동 역시 화전놀이와 관련한 피상적인 질문이나 인물의 인생관 정도를 묻는 정도에 머물렀다. 또한 여성의 인식이나 시대적 한계 속에서 현실을 살

35 나정순, 앞의 글, 2008, p. 70.

아 내었던 여성의 태도에 주목하지 않았음도 문제로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문학사 서술 시 규방가사의 창작·향유·유통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어줄 필요가 있다. 교과서에서 규방가사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한다면, 창작계층을 여성으로 한정짓기보다 남녀가 모두 창작에 참여하였는데 여성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음을 언급하는 편이 실상에 적합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여성과 남성이 가사로 교류했던 <조화전가>와 <반조화전가>와 같은 작품들도 교과서에 포섭할 수 있게 된다. 연결지어 향유 방식 역시 화답의 방식, 집단 속에서 불려지던 방식 등을 폭넓게 다룬다면 시누이와 올케 집단의 대화를 엮은 <화양동 규방가사>연작, 손위 여성들이 손아래 여성들을 향해 지은 <화전답가>들, <덴동어미화전가>³⁶ 속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보다 다채롭게 가사를 향유했던 방식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유통의 측면에서는 규방가사의 이본이 많았고 서사화된 작품들이 상당수 있었던 역사적 상황들과 작품들을 예로 들어 주어 널리 유통되었음을 시사할 수 있어야 한다.

V. 결론

이상에서 국어과 교과서에 수록된 여성가사를 여성주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여성가사를 둘러싼 창작, 향유, 유통의 양상을 최대한 살리고 여성의 의식과 삶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교과서 수록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그 결과 건국기부터 현재까지 10번의 교육과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대부 남성 중심의 작품들이 반복적으로 수록되어 왔고 그러면서 남성중심의 장르체계와 서열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조선 후기 가사의 주요 작자층이었던 여성에 주목하여 여성가사를 학습활동, 수록부분, 문학사 서술, 남성가사와의 비교를 통해 분석한 결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 조선후기 여성들이 가

36 박경주, 「규방가사가 지닌 일상성의 양상과 의미 탐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p. 170.

사를 창작·향유·유통했던 실상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남성가사의 주변부로서 다뤄진다는 점, 여성가사에서 보이는 여성들의 다양한 삶과 목소리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그것이다. 4장에서는 이러한 제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할 연구들과 교과서 수록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교과서의 고전시가작품의 선택과 배치의 문제와 여성가사 수록의 문제를 여성주의 관점에서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다만 이 방안들이 당위적인 요구로만 끝나지 않게 추후에 학습자의 요구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의 적용으로 구체적인 교과서 수록 방안과 교수학습의 실제까지 구성이 되어야 이 논의가 유용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자료>

2007 교육과정(2007 고시, 2010 검정) 국어(상) 14종, 국어(하) 16종.

2009 교육과정(2012 고시, 2013 검정) 국어 I, II 11종.

2009 교육과정(2009 고시, 2011 검정) 문학 I 13종, 문학 II 14종.

2009 교육과정(2012 고시, 2013 검정) 문학 11종.

교육과학기술부(2009),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

교육과학기술부(2012),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교육부(2015),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집필 기준(국어, 도덕, 경제, 역사)』.

교육부(201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논저>

김동준(2009), 「여성문학의 전개와 여성의 목소리」, 『새 민족문학사 강좌』, 창비.

김수경(2002), 「<부여노정기>최초의 기행 소재 규방가사」, 『규방가사의 작품 세계와 미학 : 유명씨 작품을 중심으로』, 역락.

김창원(2006), 「문학 교과서 개발에 대한 비판적 점검」, 『문학교육학』 11, 한국문학교육학회, 43-81.

나정순(2008), 「규방가사의 본질과 경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6,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69-110.

류해춘(2015), 「규방가사에 나타난 놀이문화와 경제활동」, 『국학연구론총』 15, 태민국학연구원, 73-101.

박경주(2002), 「남성화자 규방가사 연구」, 『한국시가연구』 12, 한국시가학회, 253-282.

박경주(2007), 「양성공유문학(兩性共有文學)으로서 규방가사의 특성 고찰」, 『고전문학과교육』 14,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73-298.

박경주(2012), 「규방가사가 지닌 일상성의 양상과 의미 탐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151-182.

박무영(1999), 「여성적 말하기와 여성한시의 전략」, 『여성문학연구』 2, 한국여성문학학회, 15-42.

- 박혜숙(2005), 「텐동어미화전가와 여성의 연대」, 『여성문학연구』 14, 한국여성
문학회, 123-145.
- 백순철(2001),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사회적 성격」,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이경하(2006), 「여성주의 문학연구의 효용성과 고전문학사」, 『여성문학연구』
16, 한국여성문학학회, 7-30.
- 조희정(2005), 「교과서 수록 고전 제재 변천 연구 - 건국 과도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 중등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17,
한국문학교육학회, 277-326.
- 조희정(2008), 「고전 정전의 재검토」, 『문학교육학』 25, 한국문학교육학회,
297-328.
- 하루오 시라네 외; 왕숙영 역(2002), 『창조된 고전』, 소명출판.

초록

국어과 교과서의 여성가사 수록 현황과 대안의 모색

—여성주의 관점에서

박유진

본고는 고등학교 국어,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여성가사에 주목하여 수록 양상을 살펴본 후, 여성주의 관점에서 여성가사 수록의 개선점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여성가사 중 <덴동어미화전가>와 <규원가>를 중심으로 학습활동 내용의 적절성, 수록 부분의 적절성, 문학사 서술과 규방가사 설명의 적절성, 남성가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여성가사는 남성 작품의 수에 비해 수록 작품의 수나 수록 횟수가 적고, 여성의 가사 창작·향유·유통의 측면이나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여성가사의 문학사적 의의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성가사의 대표작품 발굴과 선별, 여성어문생활을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꼼꼼한 문학사 기술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핵심어 여성가사, 덴동어미화전가, 교과서, 여성주의 관점, 규원가, 규방가사, 여성어문생활사, 정전

ABSTRACT

The Status and Alternative Solutions of Woman's Gasa in Korean Textbooks and Literacy Textbooks

—From a Feminist Standpoint

Park Yujin

This study focused on Woman's Gasa in high school Korean textbooks and literature textbooks, investigated the aspect of inclusion and sought the matters to improve for the inclusion of Woman's Gasa from a feminist standpoin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irst investigated “Dendong–Eomi–Hwajeonga” and “Gyuwonga” of the Woman's Gasa included in literature textbooks, centering around the appropriateness of learning activity contents, the appropriateness of the parts included, the appropriateness of the description of literary history and Gyubang Gasa and a comparison with men's classical poetry.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as compared to men's classical poetry, there were fewer Woman's Gasa works, which were included fewer times and did not fully reflect the aspects of writing, enjoyment and circulation or the meanings of the works in the literary history.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emphasized that it would be important to establish the meaning of Woman's Gasa in literary history in the future, and it would be necessary to make close descriptions of literary history to discover and select representative Woman's Gasa works and to allow a stereoscopic description of women's linguistic life.

KEYWORDS Woman's Gasa, Dendong-Eomi-Hwajeonga, Textbook, Feminist standpoint, Gyu-won-ga, Women's linguistic life history, Gyubang Gasa, Canon